

지역 매 아리

부안군의회 이태근 의원

“태풍피해 농심 어루만져 달라”

부안군의회 이태근 의원이 올 가을 연이은 태풍에 피해를 입은 부안 농민의 마음을 어루만져달라고 당부했다.

이태근 의원은 지난 25일 제30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군정에 관한 보충·질문’에서 부안군 태풍피해 현황과 비피해에 대한 정부 수매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문했다. 그리고 자연재해라는 불가항력적인 피해로 인한 도복에 대하여 천 년의 숨씨 이행점점 탈탈을 유예해 줄 것과 이번 태풍피해로 인한 도복비에 대하여 군에서 전량 수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부안군 농업정책과장(과장 김문갑)은 천년의 숨씨 이행 점점 시 태풍피해로 탈탈된 도복 농가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도복 비에 대하여는 희망물량에 대해 전량 수매할 계획이라 답변했다.

또한, 이태근 의원은 부안군이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가슴 아픈 농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기 위한 현명한 방법을 모색하여 국민 먹거리의 근간인 농업·농촌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며 질문을 마쳤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불법쓰레기 집중 단속

부안군은 가을철 농산물 수확과 동절기를 맞아 농촌폐비닐 등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불법쓰레기 투기·소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1개반 2명 규모로 기동반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내달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상습 민원발생지역, 건설공사장, 농·산촌 산림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행위와 농촌지역 폐비닐·쓰레기종량제 관련 생활쓰레기·악취발생물질 노천소각행위, 건설공사장·사업장 등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방치쓰레기 등이다.

군은 이달 말까지 불법쓰레기 투기·소각 근절 홍보물 제작·배포, 현수막 게시, 불법투기 경계판 및 스티커 제작·배부, 각종 회의·교육시 중점 홍보하고 내달부터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안군 최형인 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생활(영농)폐기물 단속 및 분리배출 등 계도활동을 병행해 깨끗하고 쾌적한 부안 만들기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대자연 품은 만병통치약 발효식초

고창 안문규 명인, 식초의 시장성 주목해 대한민국 최초 ‘복분자식초’ 특허출원

새콤달콤하다. 뒷맛은 깔끔하다. 고창상회복분자에서 만들어낸 ‘고창복분자식초’를 물에 희석해 먹는 느낌은 상쾌했다. 운동이나 등산을 하면서 생긴 갈증을 해소하기엔 제격이란 생각이 들었다. 평소알던 시큼달달한 식초와는 차원이 달랐다.

청정 고창에서 재배된 고품질의 복분자를 활용해 천연발효식초를 만드는 안문규 명인(62). 안 명인은 지난해 고창군 초대 농식품명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안 명인은 26살에 귀촌해 포도와 복분자를 재배하다가 우연히 식초의 시장성에 주목했다.

안 명인은 “생과는 작황에 따른 가격변동이 너무 심해 안정적인 수익창출 방안을 고민하던 중 웰빙열풍을 타고 급부상하던 식초에 관심이 갔다”며 “후초로 유명한 가고시마를 여러 차례 찾아 발효 최적온도부터 식초가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섭렵했다”고 밝혔다.

마침내 안 명인은 2007년 고창군과 공동으로 복분자 식초를 특허했고, 이후 복분자 웰빙식초 공장을 짓고 본격적인 식초 산업에 뛰어 들었다. 현재 복분자식초는 상가품 20만불 수출에 성공했고, HACCP 인증, 60평형 전통발효식품 복분자식초 체험장을 통해 건강과 나눔의 재능기부에 나서고 있다.

천연발효식초는 25도 이상의 온도와 신선한 공기, 적당한 습기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 천연발효



고품질의 복분자를 활용해 천연발효식초를 만드는 안문규 명인.

식초를 만드는데 짧게는 100일에 걸리는 1년이란 기다림도 필요하다.

안 명인은 “발효할 때 게르마늄 함량이 높은 고창황토로 만든 용기를 쓴다. 고창용기처럼 숨을 잘 쉬는 항아리에 발효식초를 오래 저장하면 수분이 점차 사라져 고급 식초가 된다”고 말했다.

안 명인은 복분자가 발효된 식초가 건강에 좋은 이유에 대해 ‘인체흡수율’을 들었다. 생 콩을 그냥 먹었을 때 영양소의 인체흡수율은 10%미만이지만 삶거나 두부를 만들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된장으로 바뀌면 영양이 더 풍부해 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안 명인은 “야식으로 라면이나 치킨을 먹고 천연발효식초를 한 잔 마시면 다음날 붓기가 사라진다”며 “당뇨를 예방하고, 혈압을

낮춘다. 운동으로 생긴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 데 최고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자랑했다.

안 명인은 고창이 대한민국 식초문화를 선도할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봤다. 전통발효식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재료와 물, 기온이다.

안 명인은 “고창은 복분자 비루해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원재료가 풍부하고, 게르마늄 온천수로 대표되는 건강한 물, 여기에 발효되기에 딱 좋은 연중 온화한 기온까지 명품식초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고창이 일본 가고시마의 후초마을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식초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식초의 장점을 알리고, 발효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교육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통한옥의 공간미학 맘껏 느껴보시길”

유기상 고창군수, 전북대 고창캠퍼스 교육생 대상 특강 진행

최근 자연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건축물로 주목 받고 있는 고창군의 유기상 군수가 고창한옥의 공간미학에 대한 특강을 펼쳤다.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유기상 군수는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를 찾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생 고위직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고창한옥의 아름다움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유 군수는 고창 한옥의 이름 다음, 고창읍성 주변 전통옛거리 체

험마을, 고창한옥의 건축 사례 등을 이야기 했다. 고창읍성, 선운사, 문수사, 무장읍성, 고창향교, 김기서 강화당 등 한옥 건축물을 소개했다.

유 군수는 “한옥에서 벽은 고정되지 않고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방과 마루와 마당의 경계가 무의미하다”며 “취석정 역시 폐쇄된 방과 개방된 마루가 어우러져 자연을 감상하고 학문을 탐구하는 선비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잘 드러나 있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유관기관 합동해 체납 차량 뿌리 뽑기 대작전

정읍시가 지난주 지역 내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과 고속도로 입구에서 유관기관 합동 체납 차량 뿌리 뽑기 대작전을 펼쳤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정읍시·정읍경찰서·한국도로공사 전북지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내 전역을 포함해 고속도로 이용 차량 중 자동차세·속도위반과 책임보험 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등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을 일제 단속했다.

이날 체납이 1건인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징수와 납부안내를 진행했다.

체납이 2건 이상이거나 지역 외 차량 중 징수 촉탁(囑託)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고질·상습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은 차량 인도와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인도된 차량은 필요시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호관 영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방침이다”며 “매년 실시하는 체납 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과 자진 납세의식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체납 차량 단속기동반을 상시 운영해 지역 내 도심과 전곡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변호관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불법 명의 차량을 포함해 방치 차량과 고액체납 영치 차량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의회, 내장산국립공원 명칭변경 반대 기자회견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산) 정상철 의원 외 9명의 의원은 29일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상철 의원을 비롯해 이도형, 이복형, 조상중, 황혜숙, 정상섭, 이상길, 기시재, 이남희, 김은주 의원이 참여했다.

최근 전남 장성군이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을 ‘내장산·백악산 국립공원’으로 변경을 요구하며 지난 9월 ‘내장산국립공원 명칭변경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상태로, 이에 정읍시의회는 정읍시민의 반대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명칭변경 불가 이유로 1971년 국립공원 제8호로 지정받은 이래 48년 동안 국민의 고유명사로 사용된 점, 이

로 인한 국민혼동 야기와 도로교통표지판, 지명표기 인쇄물 등의 교체비용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점, 정읍시와 장성군의 갈등을 유발하는 지역 이기주의적 행위인 점 등을 들었으며, 정읍시의회에서는 ‘장성군의 ‘내장산국립공원’ 명칭변경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성명서 대표 낭독자로 나선 정상철 의원은 “산 이름을 딴 전국 17개 국립공원 중 여러 지역의 산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사례는 없다”며, “국립공원 명칭이 지정된 후 48년 동안 고유명사화 되어 국민 모두에게 혼동을 야기하는 내장산 명칭변경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변경 계획이 무산될 때까지 정읍시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어르신과 함께하는 어린이예술제 큰 호응

정읍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한선미)가 주최한 ‘제2회 어르신과 함께하는 어린이예술제’가 29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어린이예술제는 0세부터 100세까지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영유아 공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최됐다.

행사에는 유진섭 시장과 정읍시의회 최낙산 의장을 비롯한 지역 내 어르신, 어린이, 어린이집 교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어린이들의 재롱찬치를 함께 즐겼다.

이날 수성 어린이집 아이들의 오카리나 공연을 시작으로 철보 어린이집(울동), 사랑 어린이집(장구), 신대인 원광 어린이집(울동), 호반 어린이집(동곡), 꼬마마을(울동), 과과 어린이

집(울동), 숲앤아이 어린이집(국악), 태양 어린이집(수화) 공연이 이어졌다. 어린이들은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배우고 익힌 울동·연극·연주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이에 어르신들은 감동받은 응원과 박수를 보내며 세대를 넘나드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유진섭 시장은 “오늘 행사를 계기로 어르신과 어린이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시간이 되어 기쁘다”며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더불어 행복한 정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선미 회장은 “작은 천사들이 준비한 예술제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어르신 전 세대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빛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세 | 750ml 1ea/12% |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세 | 375ml 5ea/13% |
GIFT SET 6세 | 500ml 함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세 | 375ml 2ea/13% |

부안 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myeongju.com